

창악회 2024 CMSS FESTIVAL IV 가곡연주회 서울 시(詩)

글. 조연숙(음악학자)

2000년에 들어 서울의 급격한 도시화로 과거 서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특별함과 '인간의 순수함'이 희미해지고 인간 사회의 '경쟁'이 서울에 경계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이처럼 서울의 생태가 자본주의 요구에 응하면서 서울을 담은 현대 시문학도 삭막한 인간관계와 오염된 서울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이에 오늘 무대에 오른 여덟 개의 노래가사는 서울을 주제로 가저온 시와 서울의 '도시화'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시로 구성되었다. 또한, 곡들은 시가 품고 있는 의미와 말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마음의 형상화'를 예술가곡으로 다듬어져 오늘 밤 일신홀에서 연주되었다.

황유원의 시집 <하얀 사슴 연못> 중 <눈사람 신비> 시를 가사로 가저와 박은경 작곡가는 「메조소프라노와 피아노를 위한 '想·思」를 작곡했다. 상상하고 생각하는 이 작품에서는 시에서 이야기하는 자연의 '순백한' 눈사람의 삶 자체를 신비에 담아 눈사람이 뜨거운 물을 끼얹어 아래로 평등하게 물로 고이면 육체는 사라지고 잘 정리된 생각은 육체의 몫이 아니고 우주의 몫으로 전적으로 느끼는 우주의 기분이라, 생각과 기분의 경계가 사라지며 생각과 기분이 동시에 '소통'함을 전한다. 이처럼 생각과 기분이 경계 없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는 과정을 서울과 연관하여 은유적으로 박유경 작곡가는 서울에 관한 생각과 느낌의 '소통적' 표현을 고민하면서 작품에 담는 시도를 했다. 특히 고저음역의 음향으로 한밤중을 여는 전주와 함께 「메조소프라노와 피아노를 위한 '想·思」 곡은 생각의 언어와 함께 단어가 품은 의미와 맥락의 분위기를 음형과 음향으로 '감정의 언어'를 입혀 전개되며 한국의 가곡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의 사유적인 음악 예술과 새로운 표현이나 사운드적인 충격보다 침착하고 정련된 심상을 그려내고 있다.

심훈의 <잘 있거라 나의 서울이여> 시를 가사로 가저와 이신혜 작곡가는 「인성과 피아노를 위한 '잘 있거라 나의 서울이여」 곡을 작곡했다. 이 시는 일제강점기 서울을 떠나야 하는 식민지 현실을 이신혜 작곡가는 성악음악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로 이해할 수 있

는 '인성'을 제시하여 곡에서 피아노와 다양한 '목소리 발성'을 활용한 대화로 표현하는 것을 시도했다. 이에 긴장감으로 여는 피아노 전주와 함께 1연은 저음역에서 탄식의 감탄사 "오오"로 시작하며 도시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토로하고 2연에서는 서울을 떠나야 하는 민중의 애달픈 마음을 '서정적'으로 담아내다가 희망을 품은 3연으로 이어진다. 3연에서는 서울의 상징 남산과 한강이 옛 모습으로 '복원'된다면 귀환할 수 있다고 희망을 비추다가 마지막 고음역에서 탄식의 감탄사 "오오"의 반복과 피아노의 상·하행 대립진행 음형으로 불안한 마음을 머금듯 하다가 죽어가는 도시 서울을 대사로 읊조리고 그 여운을 피아노의 잔향으로 처리하며 곡이 마무리되었다.

윤강로의 시 <서울 별나라>를 가사로 가저와 최고원 작곡가는 「소프라노와 피아노를 위한 '서울 별나라」 작품을 완성했다. 서정성을 담은 선율과 선율을 담은 피아노 반주가 너무도 '차분하게' 와 닿는다. 이는 작곡가가 가사의 내용전달에 더 무게감을 실으려고 구성한 것 같다. 우리 각자는 서울에서 대체불가의 존재로 별이 되고 싶어 하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 균형이 깨지고 서로 배려도 하지 않아 조화롭지 못해 이뤄지지 않는다고 이어 서울 도시화로 인한 밤의 밝은 불빛이 자연의 별이 하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밝아 하늘의 별이 눈에 띄지 않아 볼 수 없다는 은유적 메시지를 인간 사회에서 잘 '나가고' 싶어 하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의미 있는 곡이었다.

최지순 작곡가는 본인이 직접 작사한 <서울 마중> 시를 가사로 가저와 「소프라노와 피아노를 위한 '서울 마중」 곡을 완성했다. 이 곡은 작곡가 스스로 과거 서울에 살았던 옛 생각을 하면서 서울의 곳곳을 직접적으로 나열하는 본인의 개인적인 '서울 찬가'인 듯했다. 특히 서울에 대한 '호기심'이 스멀스멀 이는 것을 '신비스러운' 음향으로 묘사하는 피아노 전주가 곡을 열고 이어 서울에 대한 최지순의 현재 시간이 과거 시간을 마중하는 광경을 노래와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여운으로 그녀에게 서울은 어찌까지 '찬가'의 대상으로 마중 될 수 있을까? 질문을 남기고 싶다.

김범기 작곡가는 남성적이고 대담한 모습과 시 언어의 투박성에 지역색을 보이는 이중도의 <은목서> 시를 가사로 가저와 「소프라노와 피아노를 위한 '은목서」 곡을 작곡했으며 이 곡을 듣는 모든 이들이 향기 있는 꽃을 피우는 은목서 나무와 함께 우주의 질서를 사색하길 언급한다. 이에 나무 한 그루 은목서와 살아온 경험을 품은 사람의 마음이 우주의 '순환' 길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생명력이 사라질 때 몸체의 '옷'을 벗고 생명의 원동력인 '영혼'만이 홀로 걸어갈 바닷길에 들어선다고 전하는 노래의 '음색'을 피아노가 넓은 음역에서 펼쳐면서 동행해 주는 곡이었다.

김은영 작곡가가 작곡한 「소프라노, 플루트,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길쌈노래」는 길쌈노래에서 가저온 노동요로 길쌈 과정에 따라 즉명주와 무명은 물레를, 삼베는 삼 삼기를 그리고 베는 베틀을 이용하여 실을 뽑는데 이 과정이 길어 지루함과 고단함을 잊기 위해 부르는 곡이다. 길쌈노래는 각 과정에 따라 노동에 맞게 부르는 <물레노래> <삼삼기 노래>, <베틀노래>가 대표적이며 오늘 연주회에서 연주된 <완주물레타령>, <삼삼기 노래>, <베틀노래> 세 개의 곡 중 <완주물레타령>과 <베틀노래> 두 곡은 2022년에 초연으로 재연되었으며 새로 추가된 <삼삼기 노래>는 초연되었다. 이에 <물레노래>와 <베틀노래>는 노동 때 기구를 사용하여 기구의 움직임과 박자를 맞춰 부르지만, 기구 사용 없이 부르는 <삼삼기 노래>는 움직임과 박자에 자유로움이 있다. 그리고 여인이 물레나 베틀 작업을 느린 동작으로 하면서 <물레노래>와 <베틀노래>를 부르지만 홀로 하기에 기분에 따라 속도 조절은 자유롭다. 이를 바탕으로 김은영 작곡가는 사랑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길쌈노래를 부르는 젊은 여인의 내적 이야기를 선율과 화성으로 들려주고 작업 때 들리는 소리를 의태어와 의성어처럼 피아노와 플루트의 은유적 음향으로 '뽐아'냈다.

이인식 작곡가가 <사랑견문록집>에 실린 「기대어 울 수 있는 한 가슴」 곡을 조성을 담아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리움을 읊은 이정희의 시를 가사로 가저와 작곡했다. 이 곡은 중심조인 단조에 화음반주를 가진 선율진행과 연속적인 펼친화음으로 포근하게 '기댈' 수 있는 가슴을 묘사하며 그 가슴을 품고 있는 그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절절히 표현하다가 마지막 9음의 불협과 '행복감'을 은유하는 피카르디3도 '종지'로 마무리된다. 누구라도 살다가 한 번쯤은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 사랑의 그리움에 대한 경험이 있을 수 있기에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쓰고자 한 이인식 작곡가만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시대가 흘러도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한 견문은 지속할 것이고 그래서 이 곡은 대중 곁에 오래도록 머물며 연주될 것 같다.

장소의 문화적 정체성과 그곳에서 펼쳐진 다양한 이야기를 소재로 작품을 쓰는 작곡가로 잘 알려진 오이돈은 오늘도 음악회에서 '물과

바람이 돌아드는 고당리 고샅'에 있는 엘도라도 카페의 그리움을 담은 송세현의 <엘도라도 카페> 시를 노래 가사로 가저와 「소프라노와 피아노를 위한 '엘도라도 카페」 곡을 들려주었다. 특히 오이돈 작곡가는 <엘도라도 카페> 시를 작사한 작가의 그 기분을 「소프라노와 피아노를 위한 '엘도라도 카페」 작품에 담아보려고 시도했다. 먼저 피아노 전주에서 계속저음과 함께 '영롱한' 음향이 옥타브 도약을 하며 하늘이 강물에 비출 때 강물에 반짝이는 물결을 묘사하듯 들려온다. 이어 금강의 나룻터에 등대같이 서 '있었다는' 엘도라도 카페, 그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풍경'의 이미지로 추억을, 즉 우리의 만남, 가을, 등대 그리고 그리운 엘도라도 카페, 소환한 이야기를 노래에서 들려주며 노래를 동행하는 피아노는 부드러운 선율과 감미로운 화성 그리고 독특한 리듬으로 '서정성'과 '낭만성'을 듬뿍 발산했다.

끝으로 창악회 2024 CMSS FESTIVAL IV 가곡연주회 '서울 시(詩)'가 현재 우리가 사는 서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할 기회를 제공한 의미 있는 음악회였음을 부연하고 싶다. 🎵

